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국제종자박람회 참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용재)는 지난 16~18일 종자산업진흥센터 일원에서 진행된 '2024년 국제종자박람회'에 교육기관으로 유일하게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이 학교 종자산업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종자코딩·조식배양·상추 수경재배 등의 실습 결과물을 전시해 종자산업분야 인력양성의 요람임을 알렸다.

국제 종자박람회 참여 기업들은 학교 전시를 관람, 교육과정 설명 등을 듣고, 또 학생 취업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관학협력 동아리 'K-SEED 서포터즈' 학생 20명은 박람회장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며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김용재 교장은 "우리 학교는 종자산업의 메카인 김제에 있는 전국 유일한 종자산업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교사연수 등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이영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이영면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안부를 묻고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이영면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552세대를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거환경 개선지원, 건의 사항 청취 및 민간 자원 연계 등 행정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극 행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숙박업소 관계자 완강기 사용법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6일, 관내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을 포함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건을 방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완강기 사용법을 비롯한 비상 대피 장비 활용법에 중점을 두어 숙박업소 관계인 소집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불나면 살피서 대피 홍보 △주요 피난기구 유지관리 및 사용법 △완강기 종류 및 사용법 △화재예방 수칙 △신고요령 및 대피요령 등이며, 업소 관계자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과 대피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습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도록 했다.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활성화 나서

무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이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미리 등록된 환자의 질병 및 특성을 파악해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는 119 신고 접수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즉각 사고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가입은 119안전센터(www.119.go.kr)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병력등을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평생 사회에 헌신하신 공로 인정합니다

임규래 대한적십자사 전국 대의원,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포장 수여받아

한평생 남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임규래 대한적십자사 전국 대의원이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김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119주년 행사에서 회원들의 박수갈채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임 대의원은 그간 적십자사의 각종 봉사활동에 매진해 50년간 2만7,000시간 봉사활동 실적을 쌓아 적십자 봉사활동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임 전국 대의원은 범죄예방 피해자 돕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당밭이다.

특히, 20년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저금통을 모아 매년 연말에 적십자사에 성금을 지원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봉사의 달인이기도 하다.

임 전국 대의원은 20년 전 전북도민일보사에서 주최한 제6회 친절봉사대상을 수상한 이후로 봉사대상 수상자를 규합하여 친절봉사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헌

신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친절 봉사회는 110여명의 회원들과 해마다 여름에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삼계탕 봉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2,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임 대의원은 항상 물질적인 것은 물론 몸으로 봉사활동을 찾아 나서는 참 봉사인이기에 더 귀한 봉사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채병덕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채병덕 씨 역시 친절봉사대상을 수상한 후 송천 척수장애인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특히 친절봉사회에는 남편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해 부부가 함께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겨레와 함께, 지역과 함께' ... 전주YMCA 창립 99주년 행사

전주 YMCA(이사장 김중기) 창립 99주년 행사가 완주군 경천면 소재 경천애인 공연장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등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내년에 개최하게 되는 YM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와 99주년 사진전시, 평화의 공명체 식사, 기념식, 문화공연 등으로 1박 2일로 열렸다.

한편 전주YMCA는 99년 전인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25년 10월 10일 창립되었다. 창립에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 뜻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 민족의 지도자인 이상재, 신홍우 선생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가 크다.

전주 YMCA는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한 민족 청년 지도력 육성, 농촌사업, 농촌 협동조합운동, 노동운동, 교육 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민주발전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후원 물품과 기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국가가 어려운 시절에는 문맹퇴치운동, 굶주린 이웃과 나눔 운동, 아학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게 시민교육, 동아리, 캠프 등을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YMCA 중등교사 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교육민주화운동에도 적극 앞장섰다. 현재는 '생명 평화의 바람꽃! 청소년 피스메이커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평화와 통일운



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느린(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센터, 지역 사회 아동 돌봄 사업,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생활이 힘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드는 대안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30여 명의 이사, 60여 명의 전문지도자와 1,2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모범적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전주 YMCA는 내년에 열리게 되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주 금안동에 있는 전주 YMCA회관(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680평)을 시민을 위한 평화센터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시설이 시민을 위한 평화센터로 전환되면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 약자와 평화교육, 평화운동의 거점으로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시설 전체 리모델링 비용은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전체를 회비 수입과 시민 모금으로 감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2028년 대입 입시 설명회 개최 '호응'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지난 17일 초·중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8 대입전형 이해와 준비를 위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 대입진학지도 지원단의 조직인 교사가 진행한 강의를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주목받는 2028 대입전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입전형의 변화와 준비 방법, 학습 전략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으며, 학습 태도와 학교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교사의 강의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대입전형 내용을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내신 5등급 체제, 통합형·융합형 수능' 등 변화된 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의 후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강사와 참가자들이 대입진학과 학습방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강 교육장은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학력 신장을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진학정보와 맞춤형 상담, 진로·진학지도 등을 통해 대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5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여성상 설치임씨 선정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부도여성상위원회를 열고 제35회 정읍사 문화제 부도여성상 수상자로 소성면의 설치임씨(65, 여)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도여성'은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며 풀이 돼 곧어버린 망부석 여성의 내용을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의 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가정회합과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여인을 선발, 문화제를 통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부도여성상을 수상 하게 된 설치임씨는 남편이 논일과 밭일 등을 하면서 경운기에 짐을 싣고 밭을 치다가 뒤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헛소리 하면서 세월을 보냈으며, 2024년도 남편의 대장암 판정으로 대장암 수술을 받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있다. 설치임씨는 남편이 할 농사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남편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설치임씨는 지금도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회복한 기쁨을 이롭게하며 마을 대소사 및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 하며 소성면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시상은 26일 제35회 정읍사문화제 행사장에서 기념식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설치임씨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호공단 전북, 사전상담위원회와 금산사 트레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8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금산사 트레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준)가 주관하였으며 문화체험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한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지부 직원 2명, 보호위원 13명, 보호대상자 5명이 참석해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일대를 트레킹하며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 및 행사참여자 간 친목을 도모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경찰서, 경찰의 날 맞아 철보 총흔탐 참배

정읍경찰서가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철보면 철보총흔탐을 찾아 참배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한근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철보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치러졌고 6·25 전쟁 시 철보발전소를 지키다 순국한 69명의 호국영령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철보총흔탐은 1951년 당시 적 2,500여 명에게 철보발전소 일대를 포위당하자 차일혁 경무관을 비롯한 경찰 75명이 탈환한 경찰 훈이 새겨져 있는 곳으로 매년 지역주민과 유가족 등의 참배가 거행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경찰의 날 맞아 순직경찰 총흔비 참배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8일 '제79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간첩작전 중 순직 경찰관의 영령을 기리고자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에 있는 경찰총흔비를 찾아 참배하였다. 경찰총흔비는 1975년 9월 11일 오전 12시 25분경 남공작원 이용선이 구서포 앞 가막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복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회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발각되자 총격하여 3명 사망, 1명 상처를 입고 교전 끝에 사살되었고, 1977년 산화 2주기를 맞아 그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전우들이 뜻을 모아 전사한 전우의 명복을 빌고자 유창촌 등 27명이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날 추모 참배 행사에 참석한 한도연 서장과 각 과장은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분향 후 묵념하며 순직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결론

▲오후호(오군수 순창군 기획예산실장·정향이사 장남)·송진화(송태영·황연희씨 장녀)양= 일시: 11월 3일 (일) 오전 11시, 장소: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3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신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